

곳곳에 아픈 역사 간직...“많은 시민들 관심 가졌으면”

오월길 광주전 투어 기보니 옛 적십자병원·광주공원 등 체험 일제강점기 등 역사 해설 듣기도 “광주 역사 흔적 지워져 안타까워”

“5·18 관련 프로그램이 5월 이외에도 연중으로 기획돼 많은 시민들이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28일 5·18기념재단 오월길문화사업단은 5·18민주광장에서 5·18민주화운동과 문화, 관광을 연계한 오월길 광주전 투어를 진행했다.

이날 오월길 광주전 투어에 참여한 10여명의 시민들은 신연희 오월지기(왼쪽)와 함께 옛 적십자병원과 사직공원, 광주공원 등을 둘러보며 80년 5월 광주의 역사를 체험했다.

신 오월지기는 “시계탑 너머로 보이는 금남로는 1980년 5월 21일 계엄군들의 집단발포가 발생했던 곳이다. 당시 이곳에서 시민들이 쓰러지고 도망치다 핏빛으로 물들었다”며 “상상만해도 얼마나 처참한 현장이겠냐, 당시 상황의 목격자가 바로 이 시계탑이다”고 말했다.

이어 “전두환 신군부와 계엄군은 목격자인 시계탑을 두고 스스로 양심에 찔려 서구 농성공원에 숨었다가 지난 2013년 시민들이 발견해 2015년 이 자리로 다시 옮겨졌다”며 “5·18민주화운동 등 역사적 의미의 현장을 지켜본 시계탑에서는 매일 5시 18분 추모노래가 울려 퍼진다”고 말했다.

시민들은 오후 5시 18분께 ‘임을 위한 행진곡’ 이나오자 당시 희생됐던 시민들을 생각하며 금남로를 향해 묵념을 올리고 옛 적십자병원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옛 적십자병원으로 향하는 동안 신 오월지기는 5·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설명 뿐만 아니라

광주전과 양동시장의 역사에 대해 설명했다.

신 오월지기는 “적십자병원은 5·18 당시 금남로 인근에 위치해 있어 많은 시민들이 치료를 받던 장소이다”며 “시민들이 스스로 나서서 헌혈을 한 장소로 지난해 시에서 매입해 원형복원 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그는 “이곳은 5·18민주화운동 뿐만 아니라 일제강점기부터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장소이다”며 “근처 부동교는 광주 3·1운동 만세 시위지 뿐만 아니라 기삼연 의병장 순국지 등 많은 역사를 담고 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참가자들은 5·18 당시 시민군들이 사격 훈련을 받았고 시민들의 집결지였던 광주공원을 둘러봤다. 신 오월지기는 광주공원은 일제강점기때 강제로 학생들에게 신사참배를 시킨 곳이라며 그 흔적이 거의 사라져 안타까워했다.

투어에 참여한 김현씨(25)는 “현재 내가 거주하고 있는 광주의 역사에 대해 알고 싶어 신청했다”며 “장소마다 많은 역사가 숨겨져 있다는 사



지난 28일 광주 동구 5·18시계탑 앞에서 신연희 오월지기(왼쪽)가 오월길 광주전 투어에 참여한 시민들에게 1980년 5월 금남로 집단 발포를 설명하고 있다.

실을 알게 됐다. 현재는 그 흔적이 거의 사라져 너무 아쉽다”고 말했다.

채중숙씨(65)는 “1981년 취업준비로 정신이 없어 5·18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었다”며 “지난

2008년 우연히 알게된 5·18 프로그램 이후 계속해서 관심을 갖게됐다. 많은 시민들이 오월에 관심을 갖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민찬기 기자



29일 오전 광주 국립 5·18민주묘지 2묘역에서 열린 ‘고 정동년 선생 1주기 추모제’에서 추모객들이 헌화하고 있다. /김태규 기자

정동년 전 이사장 1주기 추모제

고 정동년 5·18 기념재단 전 이사장의 1주기 추모제가 가행됐다.
광주·전남민주화운동동지회는 29일 오전 북구 운정동 국립 5·18민주묘지 2묘역에서 ‘고

정동년 선생 1주기 추모제’를 열었다.
추모제는 고 전두환 손자 전우원씨도 참석했다.
추모제 참석자들은 정 선생의 민주화에 대한 열정을 받들어 5·18정신 계승과 진상 규명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민찬기 기자

송선대 5·18진상규명조사위원장은 “‘학살자 정권의 열린 공간이니 한 눈 팔지 말고 국회의 진상조사를 끝까지 완수하라’는 명령은 지금도 유효하다”며 “이 다짐을 오월영령과 고 정동년 선생 앞에서 약속한다”고 밝혔다. /민찬기 기자

진도 예인선 전복 선원 전원 구조 대학 연구실서 화재 30분만 진화

부처님오신날 연휴 사건

광주·전남 지역에서 석가탄신일 연휴 기간 예인선 전복과 대학 연구실 화재 등 사건·사고로 얼룩졌다.

29일 오전 6시 53분께 신안군 자은도 북쪽 약 18km 해상에서 바지선에 어망이 감겼다는 신고가 해경에 접수됐다.

바지선을 끌고 가던 예인선은 침수돼 전복됐다. 예인선 승선원 5명은 배에 물이 차기 시작하자 바지선으로 옮겨타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해경은 신고 접수 후 대형 함정, 연안 구조정을 현장으로 출동시켜 바지선에 있던 9명을 사고 발생 2시간여 만에 모두 구조했다.

사고 선박은 198t 규모 부산 선적으로 전북 새만금으로 이동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목포 해경은 기름 유출 등 해양 오염을 막기 위해 연료 주입구인 에어벤트를 봉쇄하고 있다.

앞서 지난 28일 오후 9시에 동구 조선대학교 항공우주공학관 1층에서 불이 났다.

불이 나자 건물 내부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대피해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소방당국은 신고 30여분만인 오후 9시 31분께 화재 진화를 마쳤다.

불이 난 연구실 내부에 위험 물질인 질산이 있어 화재 진화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연구실은 지난해 6월 누리호 2차 발사 때 지역대학에서는 유일하게 누리호에 큐브위성을 탑재한 곳이다.

지난 25일 성공한 3차 발사와 내년으로 예정된 4차 발사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또 지난 27일 오전 6시 55분께 서구 쌍촌동 한 오피스텔 공사 현장에서 화물 차량에 적재된 건설 자재가 떨어져 인근에서 하역 작업 중이던 A씨(44)가 깔려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경찰은 함께 작업하던 50대 지게차 운전자 B씨의 안전 관리 소홀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B씨를 과실사자 혐의로 입건할 계획이다.

해당 공사현장에서는 지난 12일, 17일 콘크리트 액이 도로변으로 흘날리면서 주행 중이거나 정차 중이던 차량이 피해를 보기도 했다.

불이 나자 건물 내부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민찬기 기자



www.shsa.kr

창립 특별할인 행사 20TH 삼성전자 B2B 호남매출 1위

삼성전자 시스템에어컨 & 가전 대량납품 전문회사

(유)하우젠공조시스템

대표이사 **신철우**



현대영인, KFC, 대계수산, LG전자, 용봉점, 용봉지주대

서광주IC, 호남고속도로, 동광주IC

용봉진입로, 문화소통로(일방통행로)

(유)하우젠공조시스템



영업/모집

○ 정규직 2명 ○ 프리랜서 수시

※ 남·녀 연령 무관 / 출퇴근 자율

www.shb2b.kr 광주광역시 북구 문화소통로 54(용봉동) FAX. 062-515-7878 E-MAIL. shsa9999@daum.net

TEL. 062-511-0006